

# 돌아온 김선빈 “팬들의 함성 그리웠다”

상무 제대하던 날 KIA 복귀  
광주챔피언스필드서 훈련 소화  
“부상없이 오래 야구하고파”

팬들의 함성을 그리며 KIA 김선빈이 21일 집으로 돌아왔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해왔던 내야수 김선빈에게는 긴 하루였다. 오전 전역을 신고한 김선빈은 집을 쟁겨 부지런히 문경에서 광주로 향했다. 예정보다 일찍 챔피언스필드에 도착한 김선빈은 곧 바로 유니폼을 갈아입고 훈련에 나섰다.

김기태 감독 앞에서 체력 훈련을 진행한 김선빈은 글러브와 방망이를 챙겨 들고 나와서 수비와 타격 훈련도 진행했다. 김선빈은 숨 돌릴 틈 없이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훈련을 모두 끝낸 뒤 취재진 앞에 섰다.

“아직 적응이 안 된다”면서 웃음을 보인 김선빈은 “긴장도 되고 색다른 느낌이다”고 집으로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화제의 중심에 선 게 다른 동료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김선빈의 마음은 그라운드로 향해 있다. 자신감도 있다.

김선빈은 “경기를 안 한지 오래됐지만 시합을 하다 보면 바로 적응이 될 것 같다. 먼저 복귀한 (안)치홍이에게 물어보니 체력적인 부분이나 긴장감이 다르다고 하다. 준비는 잘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엔트리에 들어가게 되면 빠지는 선수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익숙했던 KIA를 떠나있던 시간, 가장 달랐던 것은 마인드다. 조금은 부담감을 내려놓고 야구를 찬찬히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김선빈은 “상무에서 야간에 조명을 켜고 플레이 타구 연습도 했는데 잘 잡았다. 아무래도 수비하는 환경이 편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야구를 하면서 좋아진 것 같다”며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 상무 감독님께서도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가장 그리웠던 것은 팬들의 함성이었다. 팬의 입장이 되어 그라운드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야구에 대한 간절함 더해져 지난 2년이었던.

김선빈은 “팬들의 함성이 많이 그리웠다. 시즌 중에 챔피언스필드에 야구를 보러온 적이 있는데 그라운드를 내려다보니 느낌이 새로웠다”며 “치홍이가 복귀해서 첫 타석에서 서는 걸 봤는데 팬들의 함성을 들으니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아직 김선빈의 복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김기태 감독은 최대한 김선빈의 컨디션을 살펴 등록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치홍의 부상 사례도 있는 만큼 급할수록 천천히, 완벽하게 돌아와야 한다는 게 김 감독의 생각이다.

복귀를 위한 스타트를 끊은 김선빈은 “타석에 다시 서면 많이 긴장이 될 것 같다”며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다. 부상 없이 오래 뛰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다”며 야구 인생 2막을 여는 마음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1일 오전 상무에서 전역한 KIA 김선빈이 이날 오후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덕아웃 **T** 특특

김 감독

“저는 방위였습니다”

나지완

“다음주에 오겠습니다”

▲좋은 건 많이 봐야죠 =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을 장면이다. 외야수 윤정우는 지난 20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2-1로 앞서 5회 2사에서 넥센 선발 벤헤켄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터트렸다. 윤정우의 통산 두 번째이자 팀의 4-3 승리에 큰 역할을 한 시원한 홈런이었다. 윤정우는 21일 홈런 영상을 봤느냐에 질문에 “보니까 제대로 맞았다. 많이 돌려봤다. 좋은 건 많이 봐야 한다”고 웃었다.

▲인터뷰는 오케이인데 = 상반은 게 미안하고 속스러운 ‘캡틴’이다. 이범호는 지난 20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솔로포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공격적인 주루로 귀한 득점까지 올리면서 이날 경기의 타자 수순 선수가 됐다. 수훈선수상을 받고 덕아웃으로 돌아온 이범호는 “다른 선수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상을 받고 있다. 상은 (그만 받아야) 괜찮고 인터뷰는 오케이다”고 자상한 주장의 마음을 밝혔다.

▲다음주에 오겠습니다 = 재활군에서 훈련 중인 나지완이 안치홍과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가 김기태 감독과 마주쳤다. “아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구박 섞인 장난 말로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김기태 감독. “언제 오겠나?”는 김 감독의 질문에 나지완은 “다음주에 오겠다”며 큰소리를 쳤다. 옆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 말소됐던 나지완은 갈비뼈 미세 골절로 예상보다 복귀가 늦어졌지만, 추석 연휴 휴식을 취한 뒤 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신고를 잘하데 = 예비역으로 돌아온 내야수 김선빈과 투수 임기영이 반가운 김기태 감독이다. 김 감독은 “씩씩하게 신고를 잘하더라”면서 상무에서 전역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선빈은 이날 바로 팀 훈련에 합류를 했고, 마무리 캠프를 준비하게 된 임기영은 일단 고향 대구로 향했다. 전역 신고 모습을 재연한 김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방위였습니다”라고 말해 웃음바다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골프, 올림픽 잔류 낙관”

핀점 PGA 커미셔너 전망

팀 핀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커미셔너가 골프의 올림픽 잔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핀점은 21일(한국시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골퍼가 보여준 성과를 볼 때 올림픽에 오랫동안 정식 종목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는 지난 8월 리우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남자 상위 랭커들이 출몰이 불참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골프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정식 종목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핀점은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이 왔다”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골퍼를 방문한 뒤 만족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핀점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더 많은 관심이 올 것”이라며 “그 전에 결정되는 정식 종목 채택에서도 골퍼는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2년 동안 PGA 투어 커미셔너로 재직하며 흥행을 이끈 핀점은 올해 말 자리에서 내려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8월 MVP’ 임창용 시상식

KIA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임창용이 광주지역 기자단이 선정하고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 21병원이 시상하는 8월 월간 MVP에 선정돼 지난 20일 광주 넥센전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임창용은 8월 12경기에 마무리 및 중간계투로 등판해 13.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하며 16탈삼진과 함께 6세이브를 올렸다. 이날 시상식은 밝은안과21병원 윤길중 원장이 했고, 시상금은 100만원이다. 임창용은 시상금 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류현진 부상 후 첫 시뮬레이션 피칭…구속 140km

다저스 감독 “포스트시즌 합류는 어려울 것”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팔꿈치 부상 이후 첫 시뮬레이션 피칭을 소화했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기에 앞서 시뮬레이션 피칭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했다.

캘리포니아 지역 신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류현진의 최고 구속이 87마일(시속 140km)가량 나왔으며, 오프시즌 준비를 위한 투구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뮬레이션 피칭은 실제 경기처럼 타석에 타자를 세워두고 던지는 훈련을 뜻한다. 긴 시간 마운드에 올라가지 않는 투수는 타자와 상대하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데, 시뮬레이션 피칭은 마운드 복귀를 위해 꼭 거쳐야 할 단계다.

그동안 캐치볼과 볼펜피칭으로만 몸 상태를 점검했던 류현진은 마운드에서 타자와 상대하며 실전감각 회복에 나섰다.

류현진이 타자를 상대로 던진 건 올해 유일한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등판이 된 7월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4.2이닝 8피안타 6실점)전 이후 75일 만이다.

작년 5월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재활을 거쳐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복귀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단 한 경기만 치르고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부상자명단(DL)에 올라갔다. 시즌 막판 복귀에 시동을 건 류현진이지만 올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그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의 시뮬레이션 피칭을 지켜본 뒤 “그의 당장 목표는 투구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과 체력을 유지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류현진은 내년 시즌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시즌 로스터에 그를 포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